

後期行態主義論：

實證主義，歷史主義 및 現象學的方法論

金 光 雄
(助 教 授)

1. 社會科學 方法과 自然科學 方法	2. 行態主義觀	3. 後期行態主義	4. 現象學의 方法論
---------------------	----------	-----------	-------------

社會科學의 方法論에서 차지하는 行態主義의 비중은 아직도 크다. 이 行態主義는 實證主義(Positivism)와 經驗主義(Empiricism)를 認識論의 근거로 해서 脫傳統主義의 旗幟를 높이 들고 50餘年間 膾炙되어 왔다. 그러나 行爲者의 主觀과 價値문제로 늘 공박을 받는다. 그 자체의 공헌이 인정되긴 하면서도 70年代 이후에 이르러 行態主義 克服을 위한 여러 論議가 활발해졌다. ○른바 後期行態主義(Post Behavioralism)라는 입장이 擡頭하고, 實證主義에 대한 反命題로서, 歷史主義도 주의를 끌고, 補完策으로 現象學에 대한 理解가 促求되기도 한다.

이러한 方法論的 變遷을 一瞥하기 위해 우선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정리하고 있지 못한,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의 方法上 차이를 소개하고, 이어서 社會科學 方法論의 大畧이랄 수 있는 行態主義와 이에 대한 批判의 論을 펴 보기로 한다.

이 글은 筆者의 近刊「社會科學 研究方法論」에 소개될 한 章의 初稿를 다시 다듬지 못하고 그냥 실리는 것이다. 論理展開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 채 정돈을 다음으로 미룬다.

1. 社會科學方法과 自然科學方法

科學을 크게 나누면 經驗科學(empirical science)과 非經驗科學(nonempirical science)으로 兩分된다. 經驗科學은 우리가 살고 있는 世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탐구하고 묘사하고 설명하여 예측하려 한다. 따라서 經驗科學에서 행해지는 言明(statements)은 經驗에

의해 관경된 사실에 따라 입증되어야 한다. 立證方式에는 實驗(experimentation), 體系的 觀察(systematic observation), 面接이나 調查(interviews or surveys), 心理學的 혹은 監床의 검증(psychological or clinical testing) 및 書類, 碑文, 銅錢, 考古學的 遺品 등의 검토 등이 있다. 이러한 經驗科學의 諸特徵 때문에 經驗的 검증이 없이도 成立 가능한 論理學이나 純粹數學: 같은 非經驗科學과 구별된다.

經驗科學의 分類 중 하나가 自然科學이고 다른 하나가 社會科學이다. 이 兩者의 科學을 구별짓기란 어렵고 그 경계가 모호하여 지금까지 共同된 見解가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흔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自然科學에는 物理學, 化學, 生物學 등이 포함되고, 社會科學에는 社會學, 政治學, 人類學, 經濟學, 修史學(historiography) 및 그 관련분과 등이 포함된다. 한편 心理學은 어떤 때는 前者에, 또 어떤 때는 後者の 영역에 속한다고 하기도 하고, 양 영역에 걸쳐있다고도 한다.

社會科學은 근본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自然科學과 구별된다. 素材(subject matter)에서, 對象에서, 方法에서, 그리고 前提(presupposition)에서 구별된다. 그러나 方法論 자체에 있어서나 혹은 科學的 探求의 合理性에 관련된 諸發見을 놓고 볼 때 이들은 社會나 自然科學 양 쪽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공통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科學”과 “科學的”이라는 단어는 經驗科學의 全領域에서 어색함이 없이 쓰이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兩科學이 素材나 對象이라는 중요한 측면에서 차이가 나면서도 추구하는 바는 “科學的 知識”을 얻으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얻느냐에 方法論上의 협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모순되는 兩面性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이로 因한 論議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래에 이 科學의 相異성과 類似성을 좀 더 부연한다.

첫째, 두 科學은 研究對象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自然科學은 客觀의 世界를 對象으로 하고, 社會科學은 人間이나 그들의 意圖的 行爲(intentional behavior)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社會科學者는 일정한 法則에 따라 의사를 소통하고 상호 작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를 위한 일차적 도구가 言語이다 (Moon, 1974, 5-6). 그런데 이 言語는 의사소통의 도구에 불과하지 사실을 그려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 비중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社會科學에서 쓰는 言語는 또한 그 안에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서 그 해석에 또 다른 노력을 들이게 된다. 그러나 한편 言語의 의사교류 이외에 非言語的(non-linguistic) 의사교류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며 이것을 위해 象徴的 論理(symbolic logic)에의 연구가 촉진된다.

둘째, 두 科學은 豫測(prediction)과 意思疏通(communication)이라는 두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自然科學에서의 說明力이 未來의 어떤 발생에 관한 예측까지를 수반한다는 데에는 異見이 별로 없다. 반면에 社會科學에서의 說明은 予測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

통에 보다 큰 비중을 둔다. 이 점은 위의 첫째의 관점에서 이미 지적됐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期待(expectation)나 의도된 설명이 豫測과 동일하다는 혼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Moc 1, 1974, 27).

셋째, 두 科學은 法則(laws)과 慣習(conventions)이라는 면에서 차이가 난다. 여기서 法則은 因果나 幾能에 따른 法則으로 一般化的 속성을 지녀야 한다. 일정한 法則이 없는 설명이라는 것은 두 事象의 단순한 時差的 言及에 불과하다. 그래서 어떤 法則이 있는 설명을 요구하게 되고 그것을 社會科學에서는 具備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社會的 慣習이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一般的으로 普遍화된 法則의 경지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慣習은 그 傳來되어 온 固有性 때문에 꽤 說明力이 있다. 한편 說明과 一般性의 관계에서 보편적인 이해는 一般性을 갖기 이전에 說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法則學的 說明論(nomological explanation)에서는 그 순서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Moon, 1974, 28-29).

넷째, 두 科學은 理論(theories)과 構成的 意味(constitutive meanings)라는 차이를 지니고 있다. 理論은 自然科學의 精髓로서 經驗의 演繹的 統一性(deductive unification of experience)을 제시해 준다. 반면에 社會的 構成的 意味라는 것은 社會的 意味論이라고 할 수 있을진 몰라도 自然科學의 理論처럼 經驗의 演繹的 統一性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演繹論에 입각하기 보다는 現象을 解說(explication)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 그래서 社會的 意味理論은 科學的 理論이라기 보다는 哲學的 理論에 가깝다고 흔히 말한다. 왜냐하면 社會科學者나 哲學者들은 어떤 행위에서 전제된 것이나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것을 캐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Moon, 1974, 29).

이 밖에 두 科學의 차이를 밝힐 수 있는 側面은 許多할 것 같다. 그러나 곳곳에서 반복되는 설명이 양자의 차이를 미루어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여기서는 중요한 것만을 지적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社會科學에서 추구하는 바가 普遍的(universal)인 것과 거리가 멀고 다루는 對象이 극히 可變的이다. 社會科學에서는 영혼을 가진 人間의 行爲를 다루고 있고, 그 인간은 그가 속해 있는 社會의 生活條件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기도 한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規則性(regularities)을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緣木求魚格이 될지도 모른다. 동시에 어느 科學이나 똑같이 科學的 活動의 근거를 價值前提에 두고 있는데, 自然科學에서의 價值前提가 先驗的으로 단순하고 自명한 것이라면, 社會科學에서의 價值判斷은 복잡하고 不可分의 것이다. 社會科學에서 관심없는 (disinterested) 연구란 행해질 수 없고 價值判斷(valuation)이 연구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Myrdal, 1972, 161-162).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은 이와 같이 一見해서 전혀 유사점이 없는듯이 보인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類似性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인간의 행동이 반드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은 主觀의 世界를 벗어난 것이다. 두 과학의 경계에 속하는 心理學의 例도 兩科의 相異性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된다. 특히 實験心理學에서 다루는 문제는 다분히 自然科學의 類種에 관한 것이다. 經濟學의 경우를 봐도 經濟分析이나 計劃을 세울 때 필요한 知識은 氣象學이나 土壤學과 같은 自然科學의 知識이다

自然科學에서 假說의 實驗的 檢證方法이 社會科學의 方法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하지만 心理學의 例로 사실이 아니라서 心證을 갖게 되었음은 물론, 순수한 自然科學의 例에서도 二 反證을 찾아볼 수 있다. 즉 自然科學에서 實驗的 檢證이 不可能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Leavitt와 Shapley가 發見한 法則에 變光星(Cepheid)에 관한 것이 있는데 빛의 변화가 주기적인 성격을 띤다. 가장 밝았던 두 기간(P)이 길면 길수록 光度가 크다는 것으로 크기(M)는 光度와 반비례한다고 해서 수식으로 $M = -(a + b \cdot \log P)$ 로 표시한다. 그런데 특정주기를 가지고 있는 이 變光星을 인간의 의사대로 再現할 수 없어서 이 法則을 實驗으로 검증할 도리가 없다. 이처럼 自然科學에서 가설검증의 유일한 방법이 실험적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말을 바꾸어 實驗에 의해서만 科學性이 定立될 수 있다는 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Hempel, 1966, 22).

方法論的 個人主義(methodological individualism)도 두 科學의 境界를 애매하게 만드는 素因이다. 모든 社會現象은 個人이 처해 있는 상황과 개인 행위에 관련된 法則과 理論에 의해 묘사되고 분석되고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입장이다. 한 행위자가 처한 상황은 그의 동기와 믿음, 그리고 生理的 狀態, 生物的, 化學的 및 物理學的 要因을 동시에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方法論的 個人主義는 社會科學의 特정한 概念과 法則을 個別 心理學, 生物學, 化學 및 物理學的의 개념과 법칙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환원성(reducibility)은 마음과 몸, 心理와 物理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기도 한데 환원주의자는 모든 心理學的 現象이 근본적으로 生物的 또는 生化學的 性격을 지닌 것이라고 보고 있다 (Hempe, 1966, 106-110). 그렇다면 과연 영혼을 지닌 人間이 결국 自然科學의 本體인 物理·生物·化學 등으로 환원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社會科學과 自然科學의 對象은 本質的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말인가? 여기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올 것 같지 않고 쉽게 나와서도 안 될 것 같다.

여하튼 문제는 社會科學의 研究가 行態主義的 接近의 입장에 서면서 自然科學과의 관계와 경계를 낮아지게 된 것이다. 과연 社會科學의 연구의 영역이 고유한 것이냐는 行態主義에 관한 논의가 좀 더 편 다음에 어느정도 밝혀질 것 같다.

2. 行態主義觀

科學技術이 현대인의 생활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한 바 있으며 일찍부터 歷史家들의 관심이 여기에 각리게 되었다. 그러나 科學理論의 哲學的 體系라든지 그 歷史的 發展 過程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20세기 중반 이후의 일이었다. 1920년대에 哲學者 A.N. Whitehead가 *Science and Modern World*를 출간한 이래로 科學의 發達史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졌으며, 1950년대나 60년대에 이르러 계속해서 近代科學의 기원을 따지고 이의 形而上學的 기초를 다지며 새로운 paradigms의 발굴로 새로운 學問研究의 氣風을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過去의 傳統主義 學問研究 경향을 극복한 새로운 시도요, 이른바 行態主義 革命이 싹트던 것이다.

傳統主義(traditionalism)의 研究傾向은 1920년대까지 학문세계를 풍미했던 지배적 입장이었다. 지나친 觀念論이 흠이긴 했지만 社會現象을 하나 하나 집중적으로 분석하며 歷史意識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은 方法論的 무게를 인정할만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 입장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科學의 연구 방법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즉 이 입장이 주장하는 理論은 科學的 理論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獨斷的 主張일 때가 많았다. 그러니 한 두 현상에 타당한 진술임에는 틀림없다.

1920년대가 轉機가 되어 傳統主義가 行態主義(behavioralism)에게 王座를 물려주기 시작한다. 行態主義 初期의 分派는 이른바 實證的 行態主義(Positivist Behavioralism)였다. 政治學의 경우를 예로 들면 Stuart Rice와 Harold Gosnell이 當代를 대표하는 行態主義論 最初의 走者였는데 이들은 經驗的이고 計量的인 노력을 기울였다. 統計表가 論文에 하나 들적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分析技法은 아주 세련되지는 못했었다. P.F. Lazarsfeld의 定義에서 암시하듯이 初期의 行態主義는 다만 분명하고 간결하게 묘사하는 특징을 띄고 있었다(Lazarsfeld, 1955, 1-4). 計量的 움직임에 참여했던 實體를 저항하던 政治學者들은 印象主義的 표현으로부터 사실주의적 표현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도 이즈음이었다. 非實體的 政治學者, 즉 政治理論家들은 初期의 움직임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非實體的 計量政治學者는 당시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제2次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理論的 돌파구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특징을 M. Haas와 T.L. Becker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Haas and Becker, 1970, 484).

行態主義 第2期에 나타나기 시작한 分派를 일컬어 理論的 行態主義(Theoretical Behavioralism)라고 부른다. 第1期을 단순히 行態主義의 胎動期라고 한다면 第2期은 革命期에 접어든 것이다. Gabriel Almond, Robert Dahl, David Easton, Karl Deutsch 및 Harold Lassw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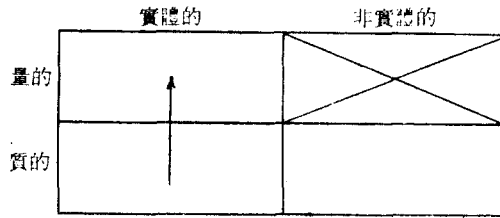


圖 1 初期行態主義의 태동

같은 巨匠들은 理論의 定立을 重視하여 假設을 구성해서 이를 검증하는 데 신경을 썼으며 연구 계획서의 작성도 이런 태두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당시의 體制的 接近法, 決定作成論, 커뮤니케이션 理論 등은 종래의 연구 경향을 뒤바꾸어 經驗的 理論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計量的 技法도 理論定立을 위한 수단으로 꽤 널리 유행하였으며 總體統計分析(aggregate statistical analysis)이나 因果模型(causal modeling)은 이미 이때 보급되었다. 그러나 이 입장은 實體的 分野이건 非實體的 分野이건 과거의 理論的 기반이 미약했던 것을 극복하는데 급급했던 나머지 지나치게 理論一邊倒의 性向을 띄고 말았다. 아래의 그림은 第2期 行態主義 革命의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 (Haas and Becker, 1970, 4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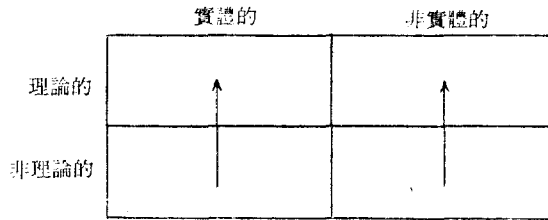


圖 2 第2期 行態主義革命

數學的 技法과 多變數分析 등으로 붐을 이루었던 分析技法의 領域은 그런대로 學界에 새로운 活力을 불어넣어 주었지만 理論에 집착한 理論家들이 호응하는데 인식했고 또 어떤면에서는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學風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보면 1960년대에는 退潮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學界는 자기 분야에서 스스로 만족하여 分科間에 의사교류가 단절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局地主義(parochialism)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크게 보았을 때 傳統主義者와 行態主義者 間에서 認識論에 관해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을 배놓고는 도대체 共通性이나 共通爭點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고 行態主義 자체안에서는 局地現象이 深化되었다.

여기에 理論面에서 科學性과 哲學性을 보다 높이고 方法面에서 洗鍊化시켜 局地現象을 극복하는 第3期 行態主義革命이 多岐方法論(multimethodologism)이라는 이름으로 1960년대 후반에 일어났던 것이다. 표방하기는 과거의 行態主義가 政策樹立에 기여하지 못했던 弱點도 극복하고 지나친 觀念도 또 지나친 數學的 遊戱도 불식하여 문제해결의 立場이 되어 보

겠다는 것이(하지만 學風이란 늘 도전을 받게 마련이어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行態主義 전반에 걸친 한계와 회의와 더불어 곧 後期行態主義(Post Behavioralism)의 입장이 만연하게 된다. 아니 그럼은 理論과 計量的의 두 측면을 둘로 각기 나누어 그 간의 학문 연구경향의 특성을 이들 측면에서 밝혀 본 것이다 (Haas and Becker, 1970, 485).

	量的	質的
理論的	多岐方法論者	理論的 行態論者
非理論的	實證的 行態論者	傳統論者

圖 3 特性에 따른 各 研究傾向의 입장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모했던 연구의 諸立場은 各己 特徵에 따라 追求하는 바 目標도 다른 것이었다. 즉 어떤 입장에서는 資料를 통해서 實在의 內的 論理(inner logic)를 파헤쳐 理論을 定立해 보려하고, 또 어떤 입장에서는 現象에서 規則性(regularities)을 찾아 法則을 기워보려 하며, 또 다른 입장에서는 特定事例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 處方까지 제시하려 한다. 이와 같은 여러 입장은 그간의 변천 경향과 일치하며 순서대로 이름하여 理論科學者(theoretical scientists), 經驗科學者(empirical scientists) 및 臨床科學者(clinical scientists)라고 부를 수 있다. 이들이 추구하는 내용은 그 성격에 따라 추상적일 수도 있고 또 구체적이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圖解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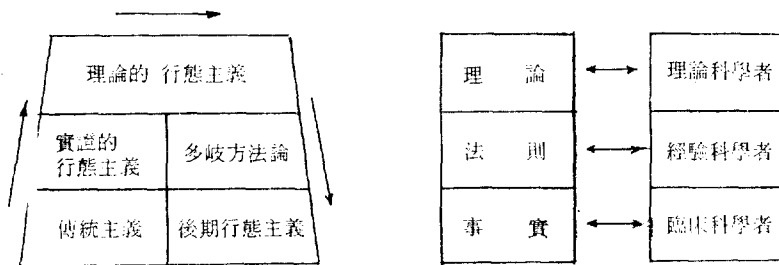


圖 4 學問研究傾向의 變遷과 科學의 諸立場

이상에서 설명한 學問研究傾向의 변천은 다분히 行態主義觀에 이르게 된 경로를 소개한 데 불과하다. 오늘에 이르러 이 行態主義는 많은 제약과 비판을 받고 있고, 「이즘」에 관한 논쟁은 끊임이 사이가 없으며, 불완전한 방법론의 지양을 위해 現象學派가 오래전부터 補完策

이라고 고개를 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行態主義가 과연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그 결점을 알아보며 時代思潮에 따라 강점이 달라지기 마련인 「이즘」간의 논쟁을 개관하면서 方法論의 推移를 따라 가 볼까 한다.

D. Easton은 “行態主義의 信條”(behavioral credo)라는 말을 통해 行態主義의 諸特性을 정리했으며 이것 때문에 1950년대에 여러 학자간에 논쟁이 끊이지 않았던 傳統主義와 行態主義의 쟁점이 어느 정도 사그러졌다고 볼 수 있다. (Easton, 1962, 1-25). 그가 정리한 行態主義의 諸特性은 이러하다.

첫째, 行態主義는 規則性(regularities)을 찾아내려 한다. 人間의 行態를 중심으로한 社會現象속에는 일정한 統一性(uniformities)이 있을테니까 이것을 찾아내므로써 앞으로의 일을 豫見해 보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傳統主義는 예컨대 政治現象의 實在란 제각기 독특한 것이지 통일성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行態主義는 立證(verification)을 필요조건으로 삼는다. 이 입장에서는 知識이란 검증 이전의 命題(proposition)로 구성되는 것이며 이것은 당연히 經驗의으로 檢證되어야 한다. 즉 모든 증거는 관찰 등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實在의 檢證이 표면상 어느 정도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社會現象이 그 裏面에 보다 복잡하고 알기 힘든 요체가 숨겨져 있으므로 과연 관찰에 의해 알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傳統主義의 주장이다.

셋째, 行態主義는 技術(techniques)을 요한다. 특히 資料의 妥當性, 信賴性 및 比較可能性을 보장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그러나 資料는 흔히 부정확하여 믿을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넷째, 行態主義는 計量化(quantification)를 속성으로 한다. 복잡한 社會現象으로부터 분명하고 정확한 知識을 얻기 위하여 때로 애매 모호한 質的 情報를 量的 情報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에는 물론 엄격한 測定과 資料操作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計量化의 문제는 그리 쉬운 대상이 아니다. 計量이 不可能하다든가, 測定이 不可能한 것을 數字로 만들어 操作分析해 보았자 그 眞義는 이미 마멸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 計量性은 行態主義의 정극 중의 정극이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영역이기도 하다.

다섯째, 行態主義는 價值中立性(value neutrality)을 지닌다. 科學的 探究라는 것은 원래 客觀性을 유지하기 위하여 價值介入을 배제한다. 價值란 事實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그러나 實體를 다룸에 있어서 價值에 대한 偏向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섯째, 行態主義는 體系화된 理論(theory)에 관심을 갖는다. 이 입장이 믿는 바는 知識은 體系內 方法으로 얻어진다는 것이다. 즉 검증 가능한 가설은 論理的으로 연결된 概念과 命題의 구조로부터 演繹的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이것이 경험의 세계에서 새로운 증거를 통

해 입증되어 理論이 성립된다. 반면에 傳統主義에서는 政策과 實體에 보다 더 관심을 쏟는다.

일곱째, 行態主義는 純粹科學(pure science)이다. 모든 연구가 다 實踐의 水準에서 정책에 즉각 응용되는 것은 아니다. 응용과학을 위해 그 기초를 공고히 해 주는 순수한 지식이 다른 한편에서는 필요하게 마련이다. 行態主義가 이런 특성을 갖는데 대하여 傳統主義의 입장에서는 反對가 없다.

여덟째, 行態主義는 分科學間간의 聯關性(interdisciplinary)을 포방한다. 行態主義者들은 스스로 個別科學의 영역에 한정하여 자신을 구속하지 않고 다른 分科의 方法과 理論, 그리고 연구에서 얻은 발견 등을 統合하고 活用하려 한다.

行態主義가 오늘날 學問領域에서 공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내용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약간의 수정을 가하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학문 연구의 사조를 지배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行態主義 본래의 모습대로 그러하리라는 뜻은 아니며 많은 탈바꿈을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히태주의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전제이자 제약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Haas and Becker, 1970, 486-503).

첫째, 行態主義者는 주로 人間行態의 一般의이고 規則的인 屬性에 주의를 기울인다.

둘째, 行態主義者는 印象的인 社會現象의 效用성과 妥當성을 경감시킨다.

셋째, 行態主義者는 융통성 없는 모델을 정립하고 이 때문에 연구의 적합성을 해치는 경향이 있다.

넷째, 行態主義者는 專門用語(jargon)를 만들어 내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行態主義者는 有用한 政策寄與를 할 수 없다.

오늘날 이러한 行態主義가 세련된 方法과 適實한 理論으로 스스로의 制約을 극복하여 政策寄與에 이까지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多岐方法論的인 行態論의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後期行態主義라는 이름 아래에서 弱點이 보완되고 지향하는 바가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경향에 대한 이러한 論爭은 근본적으로 哲學的 立場의 상이에서 오는 각기 다른 見解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 後期行態主義

行態主義의 認識論的 근거는 원래 實證主義(Positivism)와 궁극적으로는 英國의 經驗主義(Empiricism)에 있다. 이러한 認識論的 背景을 가지고 있는 行態主義의 本質에 관하여는 많은 異論이 있지만,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체의 制約 때문에 行態主義에 대해 反旗를 드는 主義主張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活潑해졌고 그 중 하나를 D. Easton의 主唱에 따라

後期行態主義(Post-Behavioralism)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論爭은 哲學的 觀點으로 보아, 반드시 옳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周知된 대로 行態主義의 認識論의 根據인 實證主義와 여기에 反旗를 든 歷史主義(Historicism)의 주장으로 집약된다. 實證主義를 혹평하는 한 입장은 ‘지식을 인격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으며, 주관에 의족하지 않는 순수한 과학적인 이론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성적인 행동을 기술로 대체해 버렸고 역사는 다만 박물관에 가두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李奎浩, 1973, 72).

그렇다고 後期行態論者들이 歷史主義의 입장을 반드시 受容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認識論의 論爭이기에 어디까지나 人間知識의 本質과 그 求得에 관한 이 같이 서로 다른 見解가 學問研究 趨勢에 부단한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한편, 實證主義나 經驗主義의 認識論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現象學派라는 주장이 있음을 미리 밝히고 이에 관하여는 이 글의 末尾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後期行態主義의 論爭을 자세히 설명한다.

後期行態主義는 行態主義가 지나치게 論理實證主義(Logical Positivism)와 論理經驗主義(Logical Empiricism)을 過信했다고 비판한다. 1950년에 實證主義는 哲學史에서 死滅하였고 Kant와 Hegel의 思想에서 知識論의 근거를 찾으려고 애썼다. Hegel의 思想이 좀 더 急進적으로 되면서 自然과 人間知識에 관한 새로운 觀念의 인식을 촉구하게 되었다. 自然이란 流動的이고 形成되며 變異한다. 또 知識은 發見되는 것이 아니라 創造되는 것이다. 人間の 마음은 客觀的이거나 絕對的 方法으로 實在나 自然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이 부인되었다. 이러한 입장은 1800년대에 Friedrich Nietzsche에 의해 자세하게 개발되었으며 그 후 많은 사람들이 이에 同調했다. 美國쪽에서는 John Dewey와 George Herbert Mead가 實用主義 運動의 일환으로 이 입장을 전개하였고, 英國에서는 F.S. C. Schiller, R.G. Collingwood, 그리고 Ludwig Wittgenstein이, 仏蘭서에서는 Henri Bergson, Jean-Paul Sartre, 그리고 Maurice Merleau-Ponty 등이 이러한 方向으로 주장을 펴 나갔다. 獨逸에서는 아예 歷史主義라고 못 박아 Friedrich Nietzsche, Wilhelm Dilthey, Oswald Spengler, Karl Mannheim, 및 Martin Heidegger 같은 쟁쟁한 哲學者의 影響하에 受容 전파되었다.

이 새로운 知識論은 美國으로 건너와 한 세기가 지난 후(20세기) 美國歷史學者들에게 至大한 影響을 끼쳤다. 美國政治學을 예로 들면 行態主義運動은 理論的 知識이 가능하다는 局面을 歷史主義에 對해서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認知된다. 行態論者는 價値는 時間과 場所에 따라 相對的이라는 見解를 容認하지만 實際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客觀的 知識은 現代科學의 方法論을 통해 얻어진다고 주장한다. 行態主義가 오랫동안 絶對력을 갖고 個別科學의 科學的 里程表를 세우는데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문제는 知識論에서 받는 공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점이라고 하겠다. 知識論에서 行態主義가 갖는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믿는 입장이 바로 歷史主義다 (Miller, 1972, 797).

歷史主義(Historicism)는 19세기 이후 독일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면서부터 多義的이 되었지만, Friedrich Hayek과 Karl Popper가 方法論上의 의미로 쓰면서 社會科學의 課題는 社會가 發達하는 法則을 發見하고 이 歷史的 발달의 法則에 근거하여 未來를 예측하는 것이 라는 견해를 뜻하게 되었다. 歷史 그 자체가 응용성이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歷史主義라는 것이 時代錯誤의인 哲學의 관념이라는 주장이 있긴 하다 (Szacki, 1971, 281-295). 그러나 이것은 歷史主義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적어도 方法論에서 문제삼는 歷史主義는 認識論의 테두리에서 보아 모든 人間의 知識은 본질적으로 時間과 場所에 따라 相對的이라는 견해를 뜻한다(Miller, 1972, 797). 歷史主義는 오늘날 半世紀 전보다 훨씬 강하게 침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게 현저한 것은 아니다. 半世紀前에 歷史主義는 놀라운 힘으로 知識層에 파고 들었으며, 우리의 世界觀(Weltanschauung)을 요약해 주었다. 歷史主義의 원리는 文化科學(Geisteswissenschaften)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의 思考에까지 스며든다 (Mannheim, 1952, 84).

오늘에 이르러 歷史主義는 특히 美國에서 個別科學의 발달에 공헌해 왔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네 분야에서 그 영향이 현저했다고 볼 수 있다. 즉 (1) 科學哲學과 科學史에서 발표된 논문: 反實證主義, (2) K. Mannheim의 견해를 수증하는 知識社會學(sociology of knowledge)의 논문, (3) 實存論의 現象學(existential phenomenology)의 최근 논문, (4) F. Nietzsche의 思想 등이다. 이들 분야에서 知識에 관한 논의가 활발했으며 유수의 학자들이 相對論(relativism)이 입장에서 反實證主義에 관한 논쟁을 폈다. 이들 중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가 John Gunnell이다. 그는 行態主義的 接近法을 Max Weber의 洞察力과 L. Wittgenstein, 및 Alfred Schütz와 같은 現象學者의 견해로 대체시켰다. 그가 주장한 것은 社會란 象徴的 形態로 스스로를 구성하고 그것이 社會의 實在에 관한 觀點을 결정지며 구성원의 행위를 규정한다는 점이다. 나아가 人間行動의 의미는 象徴的 脈絡에서 찾아야 한다고 해서 社會科學者의 사명은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는 象徴的 脈絡을 啓發하는 것이라고 한다(Gunnell, 1968, 159-201), 한편 歷史主義의 입장에서 괄목할만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homas Kuhn의 주장을 빼놓을 수 없다. 科學的 發達의 歷史的 패턴을 하나의 paradaim으로부터 다른 paradaim으로 옮겨가는 非累積的 轉移라고 생각하는 Kuhn은 어떻게 보면 歷史的 斷切의 주장하는 것 같기도 보인다. 왜냐하면 科學的 研鑽에서 급진적인 변화란 하나의 paradaim이 파기되고 다른 paradaim이 생겨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이 歷史主義라고 하는 것은 그가 科學的 革命이 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려는 의도로 보아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한편에서 생각해 보면 그는 단순히 反實證主義者라고만 할 수도 있다. 만일 科學的 革命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科學者는 현재의 paradaim이 아무 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불규칙적인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paradaim을 찾아내는 것

이고, 이것을 W. Dilthey나 K. Mannheim 같은 사람은 Weltanschauung이라고 하고, L. Wittgenstein은 Lebensform이라고도 한다. 어떠한 이름을 붙여 現在の現象을 科學的으로 설명하려는 것이건간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科學的 探求의 前提(presupposition)가 脈絡에 따라 달라서 중국에 가서 임의적이라는 점을 수증한다면 (즉 경험이나 이유에서 절대적 근거를 찾을 수 없으니까) 相對性을 본질로 삼는 歷史主義는 십분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하겠다 (Sapere, 1966, 41-85).

지금까지 現代哲學에서 다루는 人間知識의 特性에 관한 行態主義와 後期行態主義의 서로 다른 견해를 一瞥해 보았지만 어느 하나가 眞이며, 다른 하나는 僞라는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行態主義가 지금까지 支配的 接近法으로 계속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의 認識論的 根據는 實證主義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난치한 국면에 봉착했다. 反實證主義 내지는 그 變形으로 行態主義에 반대하면서 歷史主義라는 이름의 知識論을 인지하는 입장이 고개를 든 것이다. 이 歷史主義는 그렇다고 완벽한 것이 아니고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歷史主義의 原理가 認識論的 相對主義(epistemological relativism)라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다. 문제는 實證主義나 歷史主義나 어느 한쪽도 만족할 만한 논거를 마련해 주지 못한데는 데 있다. 즉 歷史主義는 實證主義에 대한 antithesis에 불과하며 또 다른 무엇이 synthesis로써 소망스럽다는 생각을 하게끔 하였다. 哲學에 있어서 傳統的 接近法에서는 입장에서 당연히 흥미를 가질만한 대상인 것이다. 政治學에서 實證主義와 歷史主義는 傳統的 政治哲學에 대항하는 경향에 하나의 유사점을 지닌다. 傳統的 政治哲學의 목표는 善과 秩序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實證主義는 價值判斷은 경험적으로 立證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歷史主義는 價值는 自然속에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個人的이거나 社會的 創造的이라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이들 三者의 관계에서 그 類異는 극히 가변적이다. 즉 어떤 면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實證主義와 歷史主義가 傳統哲學과의 비교에서 유사한가 하면, 또 다른 면에서는 양자가 각기 傳統哲學과 유사점을 갖기도 한다. 歷史主義는 評價理解를 위한 필수요건이며 특히 人間的인 것은 善惡에 대한 判斷없이 이해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傳統哲學과 상통한다. 한편 實證主義는 自然에 관한 믿음만한 지식이 적어도 몇몇 분야에서는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傳統哲學과 같은 見解를 갖는다. 왜냐하면 傳統的 見解는 마음이 自然을 있는 그대로 파악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後期行態主義와 歷史主義가 同一視될 수는 물론 없다. 時期로나 性格으로 보아 行態主義에 대한 缺點이 부각되고 批判이 漸高될 때 고개를 든 두 입장이기 때문에 가끔 同一性을 의심받게 될 때가 있다. 하지만 科學哲學에서 歷史主義가 後期行態主義者들에게 끼친 영향은 부인 못하다. 後期行態主義를 논할 때 대개 그 主唱者인 D. Easton이 표적이 되어 비판을 받는다. E. Miller도 두 가지 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Miller, 1972, 817). Easton은 後

期行態主義의 革命的 목표가 政治學 研究를 自然科學의 方法論에서처럼 좀 더 科學的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노력과 일치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만약 행태주의가 보다 創造的 活動에 干여할 수만 있다면 行態主義的 特性을 포기하지 않고 後期行態主義를 수용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後期行態主義 革命이 歷史主義 認識論의 영향을 강하게 입어 그만큼 科學과는 거리가 멀다든 점을 看過하고 말았다. 그 다음에 Easton은 또한 최근에 政治學에서 주도하는 政治哲學의 復古運動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것 같다. Easton이 이 점을 과소평가한 이유는 傳統哲學이 未來志向的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그러나 現實의 欲求와 未來의 과업에 무관심하다는 점 때문에 傳統哲學이 비난을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지만 傳統哲學도 역시 未來指針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後期行態主義에 관한 Miller의 이와 같은 비판은 그가 믿는 行態主義가 그 認識論的 根底를 實證主義에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로 터무이 그의 行態主義에 관한 誤謬를 밝히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는다. 즉 그가 주로 생각하고 있는 行態主義는 (1) 演繹的 說明 모델(deductive model of explanation)을 원용하고, (2) 實在(the real)를 觀察되는 것(the observable)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 등이다. 그러나 行態主義觀은 實體的인 것 보다는 方法論的인 것인 한, 논리적으로 哲學史에 나타나는 認識의 立場의 여러 변화와는 無關한 것으로서, 行態主義를 演繹的인 것에 局限시킬 필요가 없을 뿐더러 實在와 觀察值가 동일하다는 생각도 부기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Rudner, 1972, 845).

결국 오늘날에 와서 社會科學이건 또는 그 속의 어느 個別科學에서이건 무엇이 認識論의 근거가 되어 줄 수 있는냐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지 않다. 어떤 때는 實證主義가, 또 어떤 때는 歷史主義가 또 다른 때는 傳統哲學이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으며 복수의 思潮가 공존할 수도 물론 있다. 這間의 변천사를 보면 實證主義가 Hume과 歷史主義가 Kant나 Hegel과 동일시 될 때 전자는 命題로 후자는 反命題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또 歷史主義가 19세기의 지배사상으로, 實證主義가 形而上學에 대한 Vienna Circle의 비판으로 認知되면 이번에는 歷史主義가 命題로 되고 實證主義가 反命題로 되어 어느 것이 正이며 어느 것이 反인가를 가리기가 힘들고 또한 傳統哲學이 合命題에 이른 것이냐를 논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 그래서 우선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認識論의 信條에 대한 思潮가 年代期(chronology)의으로 辯證法的인 展開過程을 거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4. 現象學의 方法論

끝으로 行態主義에 대한 補完으로 現象學에 관한 소개를 잠시 하기로 한다. 現象學(Phe-

nomenology)은 학문 연구에서 객관주의를 극복하고 인간의 주관성을 높혀 생명있는 인간의 社會的 世界的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 現象學的 研究方法은 인간형태의 外面단을 다찰함으로써 의식이라는 正鵠을 간과해 버리는 오류에서 탈피하여 人間의 內面世界를 파악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개인의 私의 세계가 아니라 나와 남이 상호작용하는 間主觀的(intersubjective)인 世界를 사색의 主題概念으로 삼는다. 즉 남을 나와 동일한 主觀으로 간주하고 그의 동기와 태도를 파악하며 그를 事物이 아니라 그와 함께 相互關係를 성립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남은 하나의 共同體를 이루는 社會的 主觀으로서 서로의 행위를 이해하게 된다. 여기서 사용하는 도구는 물론 言語와 非言語이며 이로 인해 대화가 가능하게 된다 (Edie, 1969, 10). 이렇게 하여 科學者는 하나의 人格的 理念型을 다른 人格的 理念型과 논리적 일관성과 적합성에 따라 결합시킴으로써 社會的 世界的 한 모델에 도달하며 이로 인해 私의 경험을 넘어서 行爲者의 주관적 의미 구조에 대한 객관적 이론을 확립할 수 있게 된다 (車仁錫, 1973, 184-220).

科學的 方法이 해결할 수 없는 意識의 世界에 대한 도전을 체계화하여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한 사람은 A. Schutz이다 (Schutz, 1967). 그는 현상학적 철학(phenomenological philosophy)과 경험적 사회과학(empirical social science)의 境界에 서서 막스 웨버의 社會的 行爲 개념에서 출발하여 E. Husserl의 生活世界와 間主觀性的 개념을 통하여 경험내에서의 행위의 의미가 어떻게 구성되고 남의 의식과정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관한 방법론적 이론을 형성했다. 한편 훗서얼은 경험과학의 논리적이고 인식론적인 기초를 든든히 해 주기 위해서 한 직관적 과학(eidetic science)을 창설하려고 노력했는데(Husserl, 1970), 의식내용에 나타나는 의식의 본질이 세계의 본질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분석한 것이었다. 즉 그의 관점은 세계의 본질은 의식자체가 구성작용을 한다는 것이며 모든 과학은 과학자에 의해서 설정된 意味體系에서 성립한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 生活世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간의 창조물인 논리적 이념은 인간적 실재성과 가능성에 본질적 관념을 가지며 생활 세계의 구체적 통일성에 속한다. 생활 세계는 곧 근원적 명증성의 영역이며 모든 이론적 구성은 생활 세계의 명증성에서 최후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획득한다. 생활 세계 안에서 우리는 대상인 동시에 주관으로 서로 의존하고 서로 작용하여 얽혀 있다. 이론적 구성이 생활세계의 핵이기에 과학적 이론은 생활세계의 역사적 및 문화적 실재의 불가결한 일부분이 된다. 생활세계는 우리들의 주관에 따라 해석이 부여되는 의미의 세계이기도 하다. Schutz가 특히 강조하는 점이다. 주관은 단순한 정적인 것이 아니라 行爲라는 주체적 활동으로 표상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또한 他我的 체험을 자신의 체험과 동일화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現象學的 接近法이 지니는 장점은 行態主義的 입장이 다루지 못하는 관념·감정·동기와

같은 心理內의 요인을 행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행태주의의 한계에 관하여는 異議이 있긴 하다. 동시에 현상학도 행태의 주관이 외면에 보이는 규칙성을 통하여 알려지는 것이라는 점을 부인 못한다면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과연 행위와 활동을 구별하여 어느 쪽이 정작 지식활동의 대상으로 타당성과 유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가 명백해져야 이 논쟁은 끝이 날 수 있다.

다음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타인의 주관을 파악할 수 있는가이다. 외면적 행동의 기술이 극히 일부분의 묘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행태론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하여는 행동·이전의 관념이 감정 등의 세계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방법으로 感情移入(empathy)을 통한 인식 작용을 들 수 있다. 감정이입이란 자신이 스스로 남이 되어 남의 감정을 이해해 보려는 것으로 사회적 행위자의 주관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즉 經驗의 共現前化(Appresentation)이다. 이것을 Verstehen 接近法이라고도 한다. 이 접근법의 보다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것과 설명적인 것, 또 이성적인 것과 비이성적인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것이 되건 문제는 행위자, 관찰자, 제3의 관찰자(과학자)간에 공통의식 세계와 이로 인해 형성된 생활세계가 일치되어 間主觀的 현상이 유지됨으로써 인식에 간극이 생기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意識은 自我와 결부되어 이해해야 한다. 이 自我속에 의식 생활이 모두 모여 여기에서 어떤 작용이나 창조적 행동이 나온다고 본다. 自我는 客體를 의식지향의 목표로 삼고 間主觀性으로 他我와 연결된다. 간주관성은 「너와 나」의 종합, 즉 「우리」의 종합이다. 客觀世界는 間主觀的으로 동일한 세계에서 認知되고 自我들의 공동체가 생긴다. 이 공동체들은 서로 경험을 나누어 인식을 재촉한다. 경험에는 의식과 육체가 결부된다. 서로의 교류는 自我에 의한 他我的 共現前化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한다. (共現前化란 現前化와 동시에 존재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강의 할 때 칠판에 쓰고 있는 것을 現前한다고 하고 뒤에 학생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을 칠판에 쓴다는 사실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동시에 남의 행위를 동기와 결부시켜 파악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다. 目的動機(하기 위하여) 이전 理由動機(때문에)이전 이를 알지 못하고는 행위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이 되어 버리고 만다.

결국 현상학적 접근법의 기본 원리는 남의 경험·의식·동기 등에 나를 투영하여 인식하고 의미를 붙이게 되는 것인데 이 과정은 間主觀的인 것으로 객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은 종합적 연관의 양식으로 定型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定型이라는 間主觀的 준거 속에서 남의 행위가 특수한 위치를 점한다는 것을 믿음으로써 일상생활에서 나의 共行爲者의 행위의 동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接近法을 통해 科學이라는 문제를 거론하게 될 때 부딪치는 것은 이론을 정립하려는 科學者가 의식을 갖춘 人的理念型 즉 행위자의 定

형이 될 수 있느냐이다. 즉 순수한 관찰자는 엄격히 말해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사회적 세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지에 대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

행태주의에 대한 보안으로서의 現象學的 接近法이 유용한 면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수긍하면서 앞으로 Schutz의 方法論이 안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우선 그가 주장하는 他我的 一般命題가 作業假說(working hypothesis)이나 現象學的 心理學(phenomenological psychology)으로서의 社會科學을 위한 적합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Peritore, 1975, 132-140). 간단히 말해서 그의 전제 안에는 間主觀性에 관한 필연적 理論의 근거가 희박하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에 관한 그의 전문적인 분석에서 엄격성을 상실하게 된다. Schutz의 체계적 社會學이 아무리 명료하고 독창성이 있다 하더라도 直觀的(eidetic) 科學에서 社會科學이 꾸준히 필요로 하는 엄밀한 哲學的 基盤을 조성해 주지 못한다 (Peritore, 1975, 140), 그러나 비록 그의 주장이 문제 해결과는 아직도 거리가 좀 멀다 해도, 先驗現象學이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가지 더 보탬 것은 現象學的 理論에는 항상 體系的 幻想(illusory)이 붙어 다니는데, 이것도 관념과 감정을 축적하고 남의 주관에 객관화시키려는 現象學的 입장을 애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幻想은 複寫를 위한 고정된 模型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엄격하고 치밀하며 명료해야 할 科學的 方法이 觀念的이 될 위험이 있다. 現象學과 결부된 幻想은 주로 藝術의 世界에서도 문제된다 (金文煥譯, 1975, 37-45).

參 考 文 獻

- 金文煥 譯, 울드리치 著, 藝術哲學, 서울:玄岩社, 1975.
- 李奎浩, '社會科學 方法論의 哲學的 反省再論,' 李奎浩外編, 社會科學의 方法論, 서울:玄岩社, 1973.
- 車仁錫, '現象學과 社會科學 方法論,' 李奎浩外編, 社會科學의 方法論, 서울:玄岩社, 1973.
- Bluhm, William, *Theories of the Political Syste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5.
- Ball, Hedley, "International Relations: The Case for a Classical Approach," *World Politics*, XVIII April, 1966.
- Dahl, Robert A., "The Behavioral Approach in Political Science: Epitaph for a Monument of a Successful Protest," in H. Eulau(ed.), *Behavioralism in Political Science*. New York: Atherton Press, 1969.
- Easton, David, "Introduction: The Current Meaning of Behavioralism in Political Science," Charlesworth, James C. (ed.), *Limits of Behavioralism in Political Science*,

- Philadelphia: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62.
- Edie, James M. (ed.), *New Essays in Phenomenology*, Chicago: Quachrangle Books, 1969.
- Erickson, Stephen A. "Language and Meaning," in Edie's (ed.), *New Essays in Phenomenology*, Chicago: Quachrangle Books, 1969
- Eulau, Heinz, "Tradition and Innovation: On the Tansion between Ancient and Modern Way: in the Study of Politics," in his edition, *Behavioraesim in Political Science*, New York: Atherton Press, 1969.
- Goff, Robert, "Aphorism as Lebensform in Wittgensteins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in Edie's (ed.), *New Essays in Phenomenology*, Chicago: Quanchrangle Books, 1969.
- Gunnell, John, "Social Science and Political Reality: The Problem of Explanation," *Social Research* 35, Spring, 1968.
- Haas, Erns B., "The Balance of Power: Prescription, Concept, or Propaganda," *World Politics*. V. July 1953.
- Haas, Michael and Theodore L. Becker, "The Behavioral Revolution and After," in Haas, M. and Henry S. Kariel (eds.), *Approaches to the Study of Political Science*. Scranton, Penn.: Chandler, 1970.
- Hempel, Carl G., *Aspects of Scientific Explanation*, New York: Free Press, 1965.
- _____. *Philosophy of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6.
- Husserl, Edmund, *The Crisis of European Scieince and Transcendental Phenomenology*, trans. D. Carr,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70.
- Kemeny, John G., A. *Philosopher Looks at Science*, Princeton, N.J.: D. Van Nostrand, 1959
- Lazarsfeld, Paul F. and Morris Rosenberg (eds.), *The Language of Social Research*, Gleno, Ill.: Free Press, 1955.
- Mannheim, Karl, "Historicism," in Paul Keeskemeti (ed.),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52.
- McBride, William Leon, "Sartre and the Phenomenology of Social Violence," J.M. Edie, (ed.), *New Essays in Phenomenology*, Chicago: Quanchrangle Books, 1969.
- Miller, Eugene F., "Positivism, Historicism, and Political Inquir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XVI, 3 September 1972.
- Moon, J. I onald," In "What Sense are the Social Sciences Methodologically Distinctive?"

- unpublished mimeo presented at 1974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Myrdal, Gunnar, "How Scientific are the Social Sciences?" *Journal of Social Issues*. 28:4, 19:2.
- Olafson, Frederick, "Human Action and Historical Explanation," J.M. Edie (ed.) *New Essays in Phenomenology*, Chicago: Quadrangle Books, 1969
- Peritore., N. Patrick, "Some Problems in Alfred Schutz'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XIV. 1 March 1975.
- Rudner, Richard S., "Comment: on Evolving Standard Views in Philosophy of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LXVI, 3 September 1972.
- Shapere, Dudley, "Meaning and Scientific Change," in Robert G. Colodny (ed.), *Mind and Cosmos*,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1966.
- Schutz, Alfred, *The Phenomenology of the Social World*, trans, F. Walsh and F. Lehnert.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67.
- Szacki, Jerzy, "On the So-Called Historicism in the Social Sciences," *Quality and Quantity*. 5:2 December 1971.
- Taylor, Richard, *Metaphys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3.
- Toulmin, Stephen, *Foresight and Understanding*. New York: Harper and Row, 1961.
- Wild, John, "William James and the Phenomenology of Belief," J.M. Edie (ed.), *New Essays in Phenomenology*, Chicago: Quadrangle Books, 1969.
- Zinnes, Diana A. "A Comparison of Hostile Behavior of Decision-Makers in Simulate and Historical Data," *World Politics* XVIII April 1966.
- Zinnes, Diana A., Robert C. North, and Howard E. Koch, Jr., "Capability, Threat and the Outbreak of War," James N. Rosenau (ed.)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y*, New York: Free Press, 1961.